

PART One

공통

Chapter 00 | 수능 수학은 무엇일까??

Chapter 01 | 문제만 '제대로' 읽어도 대부분 풀린다 : 조건의 분할

수능 수학은 무슨 시험일까?

정보처리 능력 시험

1 수능 수학이란?

수학 영역의 시험은 고등학교까지의 수학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기본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문제만 '제대로' 읽어도 대부분 풀린다

수학 문제 구성 원리

1 조건 분할 하기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음.
즉, 문제를 딱 보자마자

Calculating.....

OK...!

It's Possible!!

이러지 않음..

물론 쉬운 4점짜리는 그냥 문제를 보고 풀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건이 많아짐. 문제 단위로 인식하면 조건이 너무 많아 문제 이해를 아예 못함.
일단 문제를 읽을 때, 한번에 다 이해 하지말고

이 문제 어떻게 풀지?? (X)

이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O)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는거임
정리하자면, 문제는

〈순방향〉

- 조건1
- 조건2
- 조건3
- 구하기

〈역방향〉

- 조건1
- 조건2
- 구하기
- 조건3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건역할 : 답의 후보를 말하는 역할

크게 조건을 나누면 두 역할이 있다.

- ① 글로벌 조건 [개형, 식]
- ② 점 조건

점조건은 문제가 오류가 없이 성립하는 상황 또는 문제가 숫자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또는 위에서 Case분류한 답의 후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답의 후보가 1개〉

방향	방향1
고정1	방향1
고정2	방향1
고정3	방향1

〈답의 후보가 여러개〉

방향	방향1	방향2	방향3
고정1	방향1	방향2	모순
고정2	방향1	모순	모순
고정3			

우리는 문제를 읽고 개형과 식을 정확히 잡은 다음에 남은 정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접근 하여야한다.

3 구하는 것의 개수와 조건의 개수

원칙적으로 구하는 것의 개수와 조건의 개수가 같아야 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해야 하는 개수 vs 조건의 개수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읽어야 한다.

하지만, 구하는 것에도 문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최대 최소

$$f(x) - g(x)$$

$$f(\alpha+1) - g(\alpha+1)$$

$$f'(x)$$

등등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답은 나올 수 있다